

'우리 숲 산책'

차운정 글·사진
웅진닷컴 / 1만원

아름다운 계방산 자락·고성 산불현장 등
우리 숲의 역동적인 모습 감동적으로 그려

숲에서 생명의 기운 찾는다

"단풍 고운 가을날, 아름다운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느 숲이나고요? 아주 가깝습니다. 너무 멀지도 않고요. 조금만 시간을 내면 몇 년 치 산행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차운정의 우리 숲 산책>이라는 책의 숲입니다."

이 책은 친근한 언어로 자연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산림학자 차운정 박사가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간하는 <산림>지에 4년간 연대한 글을 묶은 것이다.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



◇선운사 부도밭. 부도를 배경으로 한 숲의 생명력이 영원을 상징하는 듯하다.

경치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숲이 좋아 때가다 가방을 둘러매고 우리 숲을 찾아 헤메며 저자의 발견과 탐이 만들어낸 결실이다.

어디를 가든지 독특한 지형과 특성을 보여주는 우리 자연이야말로 감동적이라는 저자는 우리 땅의 아름다운 숲을 찾아서 생생하게 전달한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에서부터, 파헤쳐지고 짓밟힌 땅이지만 그곳에서 희망을 피워 올리고 있는 위대한 생명의 현장, 원시의 기운을 간직하고 있는 장백산의 자연까지 이 땅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모습

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무엇보다도 자연의 모습만 보고도 그들의 감정을 온 몸으로 느끼는 저자의 감수성은 우리의 기분을 들뜨게 하고 가슴을 설레게 하고도 남는다.

남도의 서정을 간직한 완도의 갈문리 숲, 단풍이 아름다운 태백산맥 자락의 계방산, 동백의 붉은 비가 어지럽게 내리는 선운산 등은 우리에게 그저 여행하기 좋은 곳일 뿐이었지만 저자의 눈과 귀와 손을 통해 생생한 자연의 감동이 살아 있는 곳으로 탈바꿈한다.

사람들의 이기로 무참히 훼손되었지만 검은 재 위에서 가녀린 등불레가 초목의 싹을 피우고 있는 고성 산불현장, 산불로 날려버린 토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새를 이고 살아가는 아픔을 간직한 유령산 역새 발 등을 총토틀로만 여겼던만 저자의 눈을 통해 훼손된 자연이 보이고, 저자의 가슴을 통해 삶을 위협받는 식물들의 아픔이 느껴지고, 저자의 손끝을 통해 그들의 삶의 고된 노력들이 감동으로 다가온다.

쌩쌩한 찬 바람에 마음마저 스산해지는 가을날, 산림학자 차운정 박사와 우리 땅의 아름다운 숲을 거닐며 생명의 기운을 느껴보자.

저자인 차씨는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산림환경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유네스코 장백산 생태계 조사단 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생명의 숲 가꾸기 운동본부'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숲 탐방교과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다.

이은자 기자 elee@buddhapia.com

몽골제국이 남긴 최초의 세계사

전문가 시평

역사를 전공하는 전문가나 역사가 좋아하는 아마추어 독자의 가슴을 동시에 설레게 할 역사학의 명저가 면밀한 주석 작업과 함께 번역되었다. 몽골 제국의 역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국내에 번역된 외국학자들의 저서에서 늘 주요 참고문헌으로 등장하는 '집사(集史, 또는 史集 - 연대기의 집성)'라는 책과 함께 라시드 앳 딘이란 이름을 접해 보았을 것이다.

라시드 앳 딘의 이 저술은 대체로 세계의 어떤 다른 문명권에서도 가져보지 못한 세계 역사에 대한 일종의 백과사전이면서, 세계의 역사를 기술하려는 명백한 의도에 따라 기획되고 서술된 최초의 역사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은 서아시아에 원정하여 일칸 국을 일으킨 훌레구의 증손자 가잔 칸이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정책 실천의 중심에 있던 라시드 앳 딘에게 몽골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역사의 정리를 명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 가잔 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초고를 접한 그의 동생 울제이투 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 제국의 경영자적인 안목에서 세계 각 민족의 역사를 제2부로 삼고, 세계의 지리를 제3부로 삼아 집필을 계속하라고 라시드 앳 딘에게 명한다.

그 결과 <집사>는 제3부로 구성되는데, 제1부 전체와 제2부의 제2권만이 현존할 뿐 제3부는 소실되어버렸다. 이번에 번역된 <부족지>는 그 제1부의 1권으로, <집사> 가운데 데서도 가장 사료적인 가치가 뛰어난 부분이다.

라시드 앳 딘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유대인 출신의 무슬림(이슬람 교도)으로 의사이면서 모든 학문에 능통한 박물학자였다고 한다. 그는 칸의 명을 받고 몽골제국의 시조 칭기스 칸 일족이 케에 넣어 두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비서(秘書인) <금책(金冊) : 황금 책으로 적었다고 해서 붙은 이름>과 <원조비사(元朝秘史)>, 그리고 페르시아의 역사가 주베이나가 쓴 <세계정복자사>를 참고로 하고, 본국에서 파견되어 온 볼라드 칭상의 도움을 받고 각 부족의 전승을 수집하여 역사를 정리하였다고 한다. 또한 서아시아의 무슬림에게 주요한 포인트마다 알라에 대한 찬미와 축복을 곁들이면서, 칭기스 칸 일족을 중심으로

문 전 유목민을 넓은 의미의 투르크 족으로 분류하였는데, 투르크 족은 '성경'과 '꾸란'에 나오는 아벳의 후예라고 하였다.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수많은 종족들의 이름에 잠시 현기증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칭기스 칸의 제국 건설에 협조했던 공신들이 속한 종족과 거기에 적대했던 종족들의 명칭들이 일화와 함께 상세히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다. 그 하나 하나를 모두 정리하며 읽으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때로 못하지 않게 재미있는 발견을 하기도 한다. 필자가 발견한 한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다.

"칭기스 칸 일족은 설날 그믐 날 밤에 대장장이의 풀구와 화로와 석탄을 준비하고 얼마간의 쇠를 달근 뒤 모두 위에 올려놓고 망치로 때려서 길게 늘이고 검사를 드리는 것이었다."

역사 김호동 님의 주를 보면, 이런 기록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마도 궁정 내부에서 황실 일족들이 치르던 비의였던 것 같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제국을 건설한 칭기스 칸 일족은 몽골의 초원에서 목축업에 종사하면서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는 전사 집단만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고대부터 쇠를 다루던 키아

트의 후손이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고도의 과학적 지식을 독점하면서 그것을 기초로 특별한 결속력을 자랑하던 일족이 아니었을까. 그런 지적 집단이었기에 세계 제국 건설이라는 꿈을 꿀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언저리에 이르러 필자는 거의 낭만적인 상상의 나라를 펼 수밖에 없었다. 하여튼

이 책에는 이런 상상의 자유를 허락하는 다양한 일화나 종족에 대한 소개가

잔뜩 들어 있다. 가령 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말로써 피보다는 '뼈'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의식은 같은 몽골족에 속하는 신라인의 진골(眞骨), 성골(聖骨)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사연을 신봉하는 종족에 대한 소개도 재미있다.

복잡한 종족들의 지리적 배치나 관계 같은 것을 간략한 지도로 그려준다면 역사 애호가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감히 말하건대, 역사 김호동 님의 다양한 언어에 대한 조예와 화문적 깊이, 엄밀한 고증의 노력이 절절히 전해져 올랐었다. 후속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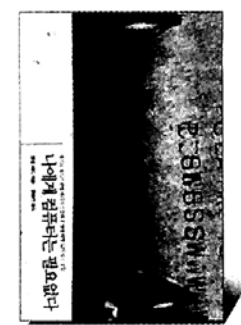
◇양역권/번역자

공고인 정체성 확립 위해 역사 정리 "간략한 종족 지도 실렸으면..." 아쉬움

<부족지>는 몽골 제국을 건설하고 통치했던 여러 군주들의 연대기를 종합하여 그 계보를 총체적으로 밝힌 책이다. 다양한 일화를 통해 몽골 제국의 생활상을 조망하는 이 책은 사료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초원 유목민의 생활과 관습, 그리고 부족사회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다. (사계절 권, 21원)

'나에게 컴퓨터는 필요없다'

웬델 벨리 지음 / 정성진 옮김
양문 / 8천원



현대 문명은 '삶의 본질'에 비추었을 때 얼마나 무책임한가? 환경과 문명의 문제에 천착하며 현대 미국을 대표하는 행동하는 지식인 웬델 벨리는 <나에게 컴퓨터는 필요없다>에서 이런 의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책의 제목이자 맨 처음 글의 주제인 '나에게 컴퓨터는 필요없다'에서 웬델 벨리는 우리 시대 문명의 이기를 대표하는 컴퓨터로부터 시작해 자연과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는 산업사회의 부작용을 고발한다. 이를 통해 문명의 진보나 기술 혁신이

파괴하는 것이며, 사회적 관점에서는 현대 문명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웬델 벨리는 이 책에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환경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 차원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각성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쓰레기 생산을 최소화 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물과

이 책을 내놓기 전 한 잡지에 '나에게 컴퓨터는'을 발표할 후 많은 이로부터 그 글에 반대하는 편지를 받았다. 그들은 웬델 벨리를 바보나 지나친 이상주의자라고 했고, 아내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녀의 인권을 유린한 불한당으로 취급했으며, 문명의 이기를 이용할 줄 모르는 그를 비웃었다.

하지만 웬델 벨리는 결코 컴퓨터를 사지 않을 것이다. 컴퓨터는 대형 전력 산업과 기술 산업에 의존하게 하고, 기존의 유익한 것들과의 관계를

현대 문명에 대한 통렬한 비판

자연스러운 파괴하는 산업사회 부작용 고발

공간의 다양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육체와 노동에 의존하며, 가정과 지역 중심의 생활로 돌아가기 등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간이 이룩해 놓은 문명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다. 웬델 벨리는 힘주어 말한다. "우리가 일하고 사랑하고 즐기고, 심지어 전쟁을 할 때도 단지 목만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다시 야생의 자연에서 자유로워질 것이고, 진정한 기쁨을 느낄 것이다."

"승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뵈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그램에서 불가장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세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들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여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발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한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아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다)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다니 쉽게 정제가 됩니다. 즉, 안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당원의 원종대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석자수 입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기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 대 상: 만 65세 이상 노환노년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주하고자 하는 모든 분
- ◆ 정 원: 24명~30명 내외
- ◆ 시설개요: 본 건 물 →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토포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 ◆ 입방비부담: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 ◆ 연 락 처: 전화 031) 759-5320 팩스 031) 759-4209

보살 염불원의 특징

-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영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마를 자광원에서 경험한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입니다.
-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 자신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인력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밝은미소 · 건강한 마음 · 보람찬 인생

평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 곳

성라 실버타운 (유료양로원)

▶ 경기도 가평소재

▶ 시설안내

- ◆ 숙박실수: 96실(2인 기준) ◆ 동·층수: A동, B동 - 지하 2층, 지상 4층
- ◆ 숙박평형: 9.5평
- ◆ 부대시설: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시공중) 등.

[입주비용]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평생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평생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입주금 현납입주	구 분	입주현납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았다고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 정 화

※ 공양주, 행지스님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 성라실버타운 본부사무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85번지 가평사무소: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02)743-0294 / 743-4026 ☎(031)585-3323~5